

방치된 거대시장 - 여행안내서

디키 해외여행시리즈가자 세계로 《로마》



글_ 강대진 서양고전학자

그래에 인도여행을 다녀온 학생을 만났다. 바라나시에 갔더니 한국 사람이 너무나 많더라고 했다. 나도 3년 전 여름, 로마에 갔다가 놀란 적이 있다. 그날만의 특별한 일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밤중 트레비 분수 앞에 모인 사람의 거의 1/3이 한국 사람이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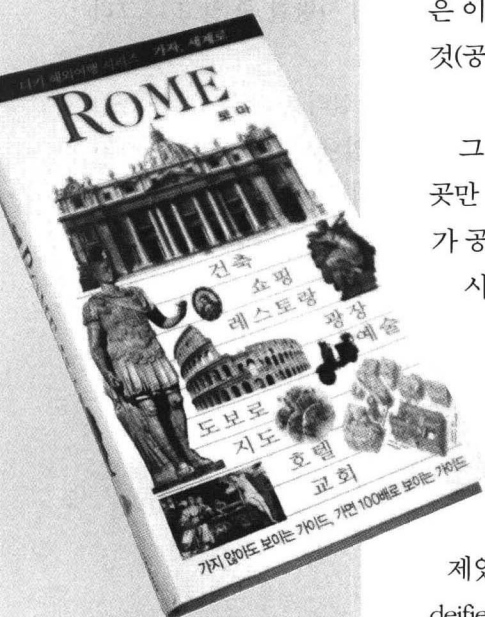
이 수많은 관광객들은 거의가 한 권 이상의 여행안내서를 샀을 것이고, 모르긴 해도 그 시장이 꽤나 클 것이다. 하지만 이런 실용서들은 일반적으로 식자들의 관심을 벗어나 있다. 틀린 곳이 있어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들 간다. 해외여행이란 것이 원체 '무거운' 일상의 짐을 잠시 내려놓는 '가벼움'의 기간이기 때문일까? 물론 책마다, 틀린 곳이 있으면 자기네 출판사로 연락해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주로 어떤 음식점이나 호텔의 위치, 연락처, 비용 따위의 실용적인 정보들에 한한다. 이런 '최신' 정보가 아닌 '묵은' 정보들, 문화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경우에는 사실상 고칠 길이 없다.

국내에 나와 있는 여행안내서 중에 내가 최고로 생각하는 것은 디키 해외여행 시리즈이다. 국내 출판사들이 정성껏 준비한 다른 안내서들을 제쳐두고 해외서적의 번역본을 뽑았다고 해서 나를 비난해도 어쩔 수가 없다. 이 시리즈의 장점은 '묵은' 정보들이 충실하다는 것이다. 먹고 자고 물건 사는 방법을 안내하는 데서 훌쩍 넘어서 있다는 말이다. 오늘은 이 좋은 안내서 시리즈 중 하나를 좀 살펴보자. 내가 비교적 잘 아는 지역, 로마에 대한 것(공경남 옮김, 디키 해외여행시리즈가자, 세계로, 《로마》, 서울문화사, 2001)이다.

그림과 사진 좋고, 설명 훌륭하고 등등 이 책의 장점은 그냥 다 지나가고, 몇 군데 틀린 곳만 지적하자. 우선 로마 역사 부분이다. "로물루스는 일곱 명의 왕 중 첫째 왕으로, 로마가 공화정이 된 BC 509년에 권좌에서 물러났다"(18쪽). 로물루스가 첫째 왕인데 공화정이 시작되던 해에 물러났다면, 다른 여섯 왕은 언제 다스렸다는 말일까? 사실은 원문 자체에 좀 문제가 있다. "Romulus was the first of seven kings, overthrown in 509 BC when Rome became a Republic." 그러니까 이 문장 뒷부분은, '일곱 왕 seven kings'을 '왕정'으로 보아, '왕정은 기원전 509년에 끝났다' 정도의 새로운 문장으로 옮겨야 했던 것이다.

첫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는 ... 사후에는 원로원으로 추대되었다"(22쪽). 황제였던 사람이 원로원 의원이 되는 것을 어떻게 "추대"라 할 수 있을까? '신격화되었다 deified by the Senate' 또는 '신으로 모셔지게 되었다' 정도가 될 말이다.

로마 최대의 시인이자 할 베르길리우스의 작품을 소개하는 데서는 한 작품이 세 개인 듯



《로마》 Dorling & Kindersley | 서울문화사 | 432쪽 | 15,000원

과장되어 있다. 그의 “유명한 작품으로는 ‘아에네이드’, ‘트로이 전쟁 영웅 이야기’, ‘에네아스의 미래 로마 기행’ 등이 있다”(23쪽)고 했지만, 이 설명은 모두 한 작품 《아이네이스》에 대한 말이다.

미술작품들의 제목을 잘못 소개하는 것도 적지 않은데, 여러 책에서 가장 흔하게 발견되는 것이 ‘납치’라고 해야 할 데서 ‘강간’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 책은, 처음 로마를 세운 젊은이들의 집단이 짝을 얻기 위해 축제를 열고 거기 구경 온 이웃 사비니 족 여자들을 납치해 달아난 사건을 두고 “사빈느 여인의 강간”(47쪽)으로, 하데스가 페르세포네를 납치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작품을 “프로세르피네의 강간”(260쪽)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영어의 rape란 단어는 원래 라틴어 rapio, rapere(나꿔채다)에서 온 말이니 ‘납치’가 더 근본적인 뜻이다.

유물 소개 중, 나를 가장 놀라게 했던 것. 부부가 함께 누워 있는 모습이 새겨진 에트루리아의 석관이 “사르코타구스씨 부부”(262쪽)라고 소개되어 있다. “사르코타구스”가 된 것은 ‘석관sarcophagus’ 이지 개인 이름이 아니다.

어떤 도기를 두고 “도운의 팔리스칸 크레이터”(262쪽)라 하고 그것이 “도운이 마차로부터 올라가는 장면을 그렸다”고 해 놓은 것도 있는데, 원문을 보니 “도운Dawn”은 ‘새벽의 여신’이다. 아마도 그 도기에 이 여신이 마차를 타고 동녘에서 떠오르는 Dawn rising in a chariot 장면이 그려져 있는 모양이다. 하지만 사진에는 씩씩하는 두 남자가 그려져 있으니 원본에도 문제가 있다.

영어 단어를 발음대로 적어 혼란이 생긴 사례 몇 개 더. 국가의 화덕을 지키던 ‘베스타의 처녀사제’들을 ‘베스타 버진즈’(80쪽 등)라고 해서 그제 원래의 고유명사인 듯 되어 있다. 네로황제가 지었던 건물도 “골든 하우스”(100, 175쪽)로 되어 있는데, ‘황금궁전’으로 고치든지 아니면 라틴어대로 ‘도무스 아우레이’로 하는 것이 좋겠다. 나보나 광장 피우미 분수에 있는 세계 4대 강 중에는 “플레이트 강”(50, 120쪽)이 꼽아졌는데, 일반 독자가 알아들길 원한다면 ‘라플라타 강(River Plate)’으로 바꿔야 할 것이다.

아프로디테가 물에서 올라오는 장면을 보여주는 유명한 부조에는 “루드비시 트로비의 측면부조”(127쪽)라는 뜻 모를 이름이 붙어 있는데, 여기서 “트로비”는 ‘보좌 Throne’를 소리나는 대로 적다가 틀린 모양이다. 한 전사가 아내를 죽이고 자신도 자결하는 모습이 “칼라타의 자살”(127쪽)이라고 소개되어 있는데, 이것은 ‘갈라티아 인

(Galata)과 그의 아내’로 알려진 작품이다.

“로마의 독재자였던 포스투미우스는 … 레이크 레질루스 전투를 하게”(84쪽) 되었다는 문장에서, “레이크(Lake)”는 그냥 ‘호수’란 뜻이다. 그리고 여기 나온 “독재자”는 국가 비상사태를 맞아 위기를 타개하도록 대권을 위임 받은 직책 이름으로서, ‘독재관dictator’이 되어야 한다. 포룸에 있는 한 건물에 대한 설명에서, “마르쿠스 풀비우스 노빌로르 영사에 의해 만들어졌다. 당시 원로원은 매년 선출되었”(82쪽)다고 했는데, 여기서 “영사”는 ‘집정관consul’이 되어야 하고, 둘째 문장의 “원로원” 역시 ‘집정관’으로 고쳐야 한다. 원로원 의원은 종신직이었다.

포룸에 있었던 로스트라(연단)에 대한 설명도 놀라운 것이다. “키케로가 … 처형된 후 그의 머리와 손이 잘려져서 이곳에 걸렸다. 마르크 안토니의 아내인 풀비아가 머리핀으로 마르크 안토니의 혀를 찌른 곳도 … 이곳이다”(82쪽). 안토니우스의 아내가 남편의 혀를 찌르다니! 원문을 보니 혀를 찢린 사람은 ‘그 위대한 연설가the great orator’, 즉 키케로였다. 애당초 그는 안토니우스를 비판했던 것 때문에 미움을 받고 죽음까지 당했던 것이다.

유대 지역의 반란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 반란은 2년 후 예루살렘과 디아스포라가 붕괴되는 것으로 끝이 났다”(87쪽)고 한 것도 놀랍다. 디아스포라라면 유대인의 흩어짐을 의미하는 말인데 디아스포라가 붕괴되다니! 누구라도 쉽게 ‘예루살렘의 붕괴와 유대인의 디아스포라로 끝났다’로 고칠 문장이다.

트리아누스의 시장에서 “무료로 옥수수를 나누어 주었다”(88쪽)는 주장도 우리의 상식에 어긋난다. 옥수수는 보통 아메리카에서 온 것으로 알려져 있으니, 대항해 시대 이전에는 그런 용어조차 없었을 터이다. 그냥 ‘곡물을 무료로a free corn ration’ 나눠주었다고 하면 되겠다. 호텔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에서, 먼저 거기 쓰인 기호들을 설명하면서, “호텔리스트 약물 해설”(291쪽)이라는 제목을 붙여 놓았는데, “약물”은 너무 이상한 용어다. 그냥 ‘기호 설명’ 정도로 하는 것이 좋겠다.

제일 좋은 안내서라고 해 놓고는 너무 많이 험뜯었다. 언제나처럼 관계자들에게 용서를 빌면서, 내게 또 기회가 온다면 그래도 역시 이 책을 들고 여행을 떠나리라는 말로써 위로를 드린다. ☞

이 글을 쓴 강대진은

서울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서양고전학 전공과정에서 플라톤의 《향연》 연구로 석사, 같은 과정에서 호메로스의 《일리아스》 연구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국민대학교 겸임교수를 지냈으며 저서로는 《진축한 책임기》, 《신화와 영화》, 역서로 《아폴로도로스 신화집》이 있다.